

## 바이런 김이 바라본 하늘

February, 2018 | 김민형 어시스턴트 에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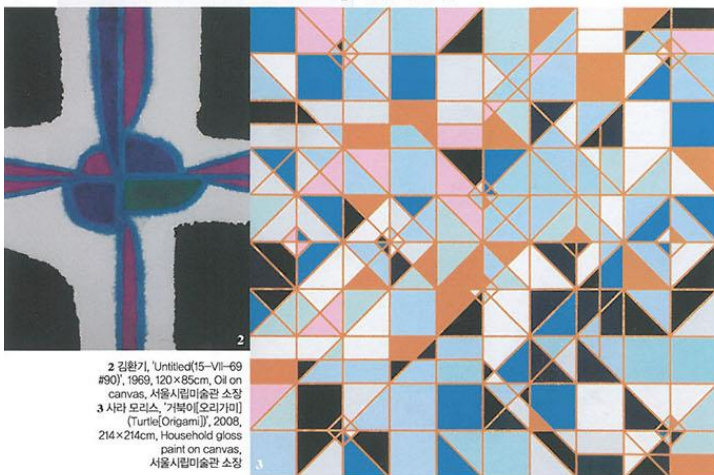
### 망각에 부치는 노래

무엇을 잊는다는 것이 흔한 노래가사처럼 진부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기획전 (망각에 부치는 노래)를 보면 '잊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어떻게 세세해질 수 있는지, 기억과 맞물려 레민해진 시각으로 경험하게 된다. 기억이 회미해지는 과정, 잊고 있었지만 문득 떠오르는 감정,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담긴 작품들은 진부해질 틈이 없다. 루이즈 부르주아의 '망각에 부치는 노래'는 그녀가 일상적으로 입었던 옷, 가재도구들이 분리되고 해제되어 새로운 그림책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그림책은 대중에게 새로운 기억으로 남는다. 잊혀지고 새로운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는 망각의 과정을 김환기, 사라 모리스와 같은 국내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으로 만나는 일은 2018년 연초의 이색적인 기억이 될 것이다.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미술분관, 2월 25일까지. 어시스턴트 에디터/ 김민형



1 루이즈 부르주아, '망각에 부치는 노래(Ode to Loubi)', 2004, 28×33×4cm(×34점), 27×77×4cm(1점), Fabric Collage and linographs,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 ART



2 김환기, 'Untitled(15-VII-69 #90)', 1969, 120×85cm, Oil on canvas,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3 사라 모리스, '가뭇이[오리개미] (Turtle/Origami)', 2008, 214×214cm, Household gloss paint on canvas,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조덕현과 우리가 있는 곳**  
현 시대의 문제의 답은 과거에 있다. 서사적인 작품으로 근·현대사를 조명해온 조덕현 작가의 개인전 <에픽 상하이>가 PKM갤러리에서 열린다. 재미있는 점은 과거 그의 전시가 그랬듯 허구 인물 '조덕현'이 등장한다는 것. '조덕현'은 1930년대의 금성장과 명멸을 겪은 올드 상하이에서 계층 간의 갈등, 물질만능주의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21세기의 한국과는 사뭇 다른 시공간이지만 그 인연의 번뇌와 갈등은 우리의 고민과 다를 없다. 현실의 답을 찾아 올드 상하이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작가의 섬세한 예술혼에 매료되는 것은 당연한 일. 1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어시스턴트 에디터/ 김민형



바이런 김, 'Sunday Morning 1/27/08', 2008, 14×14 in. (35.6×35.6 cm), Acrylic and ink on canvas mounted on panel, Courtesy of the artist image provided by Kujee Gallery

### 바이런 김이 바라본 하늘

무의식적으로 "예쁘다!"를 연발하며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수심장씩 기록해두었던 "고화질" 하늘과는 확연히 다르다. 2001년부터 매주 일요일의 하늘을 캔버스로 옮겼던 바이런 김의 전시 <Sky>. 이번 전시에는 2009년부터 2016년에 이르는 작품 50여 점이 공개된다. 구름 위에 섬세하게 얹혀진 일기를 읽다 보면 바이런 김만의 맑고 순수한 열정에 환기가 된다. 작가가 선사하는 하늘의 청량감으로 그의 일요일을 들여다보는 건 아떨까. 국제갤러리.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어시스턴트 에디터/ 김민형

사진/ Park Jaeyoung(BOOK)

### 시리즈는 계속된다

피트니스, 서재, 게스트하우스, 쇼핑, 만원동, 집지, 계속, 스위트,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여덟 개의 키워드를 관통하는 질문 하나가 있다. "생각만 해도 좋은, 셀레는, 피난처가 되는, 당신에게는 그런 한 가지가 있나요?" 시인, 활동가, 목사, 프리랜스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필자가 구축해온 작은 세계가 담긴 '아무튼'은 3개의 출판사(위고, 제철소, 코난북스)가 협업해서 만든 유쾌한 에세이 시리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가벼운 무게처럼, 산뜻하고 느긋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산보' 같은 독서 경험을 선사한다. 황효진 저자가 쓴 <아무튼, 집지>엔 지금은 사라진 '걸 패션' 이름부터 집지로 인테리어를 배웠다든 에피소드가 깨알처럼 등장하고 "집지를 보지 않는다면, 결코 만날 수 없다."는 문장에 코끝이 '핑'해지기도 한다. "좀 더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부제처럼 집지로 둘러싸인 방에서 동고동락해온 어느 집지 애호가의 소중한 노트를 펼쳐본 것 같다. 출판사 난다에서 기획한 '읽어본다' 시리즈는 '책의 매뉴얼'과도 같다. 시인 장석주 박연준 부부의 (내 아침 인사 대신 읽어보), 카페 골짜기 장모 대표와 문학동네 강윤정 편집자 부부의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각자의 책을 읽는다)처럼 커를이 책의 좌우 페이지를 밀어 함께 썬내려가거나 요조, 남궁민 등 애서기로 유명한 저자들이 참여했다. 독자들에게 어린 시절 쓰던 독서 일기의 존재를 새삼 떠오르게 만드는 프로젝트다. 에디터/ 김아름

### BOOK

